

'와글와글 시장가요제'로 활력 충전

도, 연중방송 추진·36개 시장 확대 개최... 공백기에 홍보다큐 프로그램 제작·반영

전북도는 시·군 및 전북상인연합회와 함께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이들에게 불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전통시장 와글와글 시장가요제'를 연중방송 추진과 도내 36개 시장으로 확대 개최하기로 했다.

최근 내수부진에 따른 경기 침체와 소비패턴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 가운데 '와글와글 시장가요제'는 TV매체를 활용한 홍보전략으로 전북도의 가장 핵심적인 사업 중 하나다.

이들처럼 전통시장을 '와글와글'하게 만들어 최대의 홍보효과를 거두

고, 축제의 장으로 각광을 받으면서 전통시장을 찾는 고객뿐만 아니라 시장 상인들에게도 호응이 좋은 사업으로 올해는 36개소로 확대해 더 많은 시장을 찾아가겠다.

지난해에는 와글와글시장가요제 연말 왕중왕전을 개최해 업그레이드했다면, 올해는 가요제 개최 확대뿐만 아니라 흑서기,흑한기에 개최가 어려워 발생했던 공백기에 전통시장 홍보다큐 프로그램을 제작·반영해 연중방송을 추진한다.

가요제 방송도 JTJ에서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12시(60분간)에 시청할 수 있기 때문에 가족단위 시청자

들을 전통시장으로 유인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와글와글 시장가요제는 개그맨 황기순씨의 진행으로 초청가수의 노래 및 상인과 시민들이 함께 어우러진 장기 자랑 등으로 구성되며 행운권 추첨을 통해 경품행사도 있을 예정이다.

전북도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특성화시장 공모사업에 6개 시장이 선정돼 국비 34억원을 확보했고, 전통시장 환경개선 및 주차장 조성 등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에도 국비 110억원을 확보해 전통시장의 편리한 쇼핑 환경 조성과 특성을 살린 특색있는 시장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각 지역별로 개성에 맞는 문화행사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고, 전통시장을 이용하는데 불편을 겪는 소비자들을 위해 장애인 도우미를 배치해 조금이나마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고재욱 일자리경제정책관은 "전통시장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통시장 와글와글 시장가요제'는 23일 오후 2시 군산 주공시장에서 여는 등 올해 36개 전통시장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인재용 기자

전북 뿌리산업 상생협력 방안 논의

전북뿌리산업연합회, 송하진 지사 예방

(사)전북뿌리산업연합회 신임 회장단은 22일 도청에서 송하진 지사를 예방하고 뿌리산업 활성화방안 등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자리는 금형, 소성가공 등 5개 분야 150여 회원을 둔 (사)전북뿌리산업연합회 신임 회장단 일행 7명이 도정을 총괄하는 송하진 지사를 인사차 방문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신임 권상식 회장은 송하진 지사를 예방한 자리에서 그간 동종 업종간 협력관계에서 이업종 협력관계(금형↔소성가공(용접포함)↔표면처리↔주물)를 통한 융합제품 개발 및 일감 확

보에 주력할 계획임을 밝히며, 뿌리제품의 수출 활로모색에 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송하진 지사는 뿌리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뿌리산업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송하진 지사는 "뿌리산업은 국가 주력산업인 자동차,조선,반도체의 품질과 생산성을 좌우하는 핵심 산업으로 전방 수요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면서 "도내 뿌리산업 발전을 위해 기술개발, 인력양성, 환경개선 지원사업 등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도-방통위 시청각장애인용 TV 보급 공동추진 업무협약 체결

송하진 지사와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22일 전주 한옥마을 소리문화관에서 시청각장애인용TV 보급 공동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전북도는 도내 2만6,000여명의 시청각장애인 및 눈.귀 상이등급자를 대상으로 시청각장애인용 TV 보급을 크게 확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올해 보급되는 장애인용 TV는 저소특성에 우수 보급될 예정으로 전용 리모콘을 통해 시청각장애인 음성안내와 자막의 크기와 위치를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 탑재돼 있다.

신청접수는 저소득 시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주민센터 등을 통해 오는 6월 1일부터 시작한다. /인재용 기자



송하진 전북도지사(왼쪽)와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22일 전주 한옥마을 소리문화관에서 시청각장애인용TV 보급 공동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융복합 4차 산업 육성 공동 대응키로

도, R&D기관장 간담회 개최

전북도는 22일 도내 국가·정부출연 기관 및 도 출연기관 등 18개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R&D기관장 간담회'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각 기관의 주요 중점사업 설명, 국가예산 확보 및 대선공약 발굴 등을 위한 협조방안과 각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전북도와의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전북도는 4차 산업혁명 대응과 관련 지역의 산업과 연계한 대응 계획으로 주력산업 고도화 및 미래 신산업 육성에 따른 핵심과제를 도출하고 간담회에 참석한 각 기관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4차 산업혁명에 공동 대응키로 했다.

특히, 전북의 강점분야인 농생명 분야의 인공지능과 로봇, IoT, 빅데이터 기술의 혁명을 통해 실재와 가상이 통합해 사물을 자동적·지능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가상물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생산기기와 생산품 간 상호 소통체계가 구축될 수 있는 융복합 4차 산업 육성에 적극 힘쓰기로 했다.

또한, 각 기관에서 추진하는 중점사업과 2018년 국가예산 건의사업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의 검토를 거쳐 국가 예산 반영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송하진 지사는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도약의 시점에서 도내 R&D 기관들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우수한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지역 발전을 위한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인재용 기자

안전신문고로 20년 숙원사업 4개월만에 해결

조은수 전북여고 학생, '안전신문고 체험수기 공모' 최우수상 수상

안전신문고로 학교 앞 신호등 20년 숙원사업이 4개월만에 해결됐다.

국민안전처에서 전국적으로 실시한 '안전신문고 체험수기 공모'에서 전주시 조은수(16세, 전북여고) 학생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사례는 조은수 학생이 당시 재학하던 전주 중앙중학교 후문 앞 4차선 대로에 20년간 해결되지 않은 신호등 문제를 안전신문고로 4개월 만에 해결한 사례이다.

최우수 당선자 수기는 '작은 관심

하나로 안전과 편의 두 마리 토끼 잡기'라는 제목으로, 조은수 학생이 2학년 새 학기가 시작된 2015년 3월,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가려고 친구들과 어울려 길을 건너려 할 때, 자동차가 급하게 멈추는 소리가 났고 1학년 여학생이 택시 옆에 주저앉아 얼굴을 숙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됐다.

이 상황을 목격한 조은수 학생은 학교에서 배포한 안전신문고 안내장을 보고,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호등 설치해달라는 안전신문고를 했다.

사람들은 신호등 문제가 20년 넘게 제기되었는데도, 풀리지 않은 문제라 회의적 태도를 보였으나, 안전신문고 신고 후 불과 이틀 만에 해당 경찰서로부터 "교통사고 발생 및 보행자의 대부분이 학생들로 통학시간에 집중되는 점을 고려해 신호 체계 변경을 검토해보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리고 그 해 여름에 신호등 설치가 완료됐다.

신호등 설치가 어려운 구간이었지만, 학생들의 등하교시간 전후로 약 2

시간만 신호등을 가동하는 운영의 묘를 살려 수백명의 학생들이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막은 것이다.

조은수 학생은 수상 소감에서 "자의 신고로 인해 안전사고를 예방했다는 데 보람과 자부심을 느낀다"며, "가족, 친구 등 주변사람들에게 안전신문고를 널리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조은수 학생에게는 22일 국민안전처로부터 상금 200만원이 주어졌으며, 공모작은 안전신문고 체험 사례집으로 발간돼 홍보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안전신문고는 스마트폰 앱이나 안전신문고 포털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위험요인 발견시 사진을 찍어 손쉽게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인재용 기자

새만금청, '기반시설 유관기관 실무협의회' 개최

새만금개발청은 22일 새만금미래관에서 유관기관과 함께 '새만금지역 공급 기반시설의 원활한 구축'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새만금 광역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토대로 기관별 시행 계획을 수립해 상하수도,전기,가스 등의 공급 기반시설을 원활히 구축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특히, 가스관로의 배수갑문 통과 방안과 배수지 설치 위치 변경에 대한 기관별 이견이나 건의 사항을 협의하는 등 광역기반시설 설치 최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아울러, 올해 말 조성 완료 예정인 일부 농·생명용지 구역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공급해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로 했다.

새만금청 관계자는 "유관기관 간 협업을 통해 새만금 지역 내 필수 기반

시설을 조속히 구축함으로써 내부개발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4·12 보궐 후보자 등록 23-24일

4·12 보궐 선거 후보자 등록 신청이 오는 23일부터 이틀 간 진행된다.

22일 전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4월12일 도내에서 치러지는 보궐선거 2곳(광역의원 1곳·기초의원 1곳)에 대한 후보자 등록 신청이 23일과 24일에 이뤄진다.

이번 보궐선거에 출마하려면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피선거권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후보자 등록 신청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후보자 등록이 마감되면 기호가 결정된다. /인재용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